

※ 韓國新文學의 環境作用에 대한 考察

李 庸 勳

A Study on the Environment Having Effects upon Modern Korean Literature

Yong-Hoon Lee

I. 序 言	IV. 植民地的 虛無主義의 樣相
II. 敗北主義의 樣相	V. 結 語
III. 誇大妄想症의 樣相	

Abstract

Modern Korean Literature was under the influence of unique environment of Japanese colonialism. It is obvious that this environment exercised an important effect upon modern Korean Literature.

Even though we can enumerate many effects, main ones are defeatism, megalomania, and nihilism caused by colonial situations.

These are negative elements of modern Korean Literature, but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essential cause was the social environment influenced by the Japanese invasion upon Korea.

I. 序 言

文學의 사실에 대한 正當한 解明을 위해서는 그것에 가해진 文學外的 事實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文學의 사회적 역사적 背景이 文學內的 事實과의 관련 아래 기술되지 않고, 平面的 圖式的인 관찰에 의해 기술되는 한, 그것은 文學的인 事實과 眞實을 부각시키지

※ 여기서 新文學이라는 용어는 近代文學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近代文學은 아직 그것의 精確한 概念設定과 時代區分 등 난점이 있으므로, 편의상 既存文學史의 用法을 그대로 따른다.

데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을 것이다.

이 진술 속에는 文學은 社會的 所産이며 社會의 現象的 反影이라는 매우 소박한 命題가 전제되어 있다. 政治·社會·經濟라는 文學外的 사실이 역사의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近代 및 現代는 정치·경제의 압도적인 힘에 의한 歷史이다. 따라서 文學外的 사실이 文學內的 사실에 至大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總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新文學은 植民地時代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文學이다. 즉 1910년 韓日合併을 역사적 단계로 하여 自主權喪失이라는 民族史的 종말에서 출발한 것이 우리의 新文學인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적으로 新文學의 주요 환경은 곧 日帝 植民地時代가 되는 셈이다. 이것이 우리 新文學의 側面에 어떤 變數的 要因으로 작용했으며, 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직접 作家의 意識 및 그들의 作品을 통해서 살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意圖하는 바 목적이다.

日帝의 植民地的 침략은 우리 民族에게 自主權을 박탈하고, 경제적으로는 民族資本의 말살 및 植民地的 窮乏化 現象을 초래했으며, 정신적으로 植民史觀의 停滯性 理論을 비롯한 敗北主義의 劣等意識을 뿌리깊이 심어주는 등, 실로 報償할 수 없는 歷史的 矛盾을 惹起시켰다.

이제, 이같은 역사적 모순이 우리 新文學에 어떻게 영향을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그 影響相은 여러 가지로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日帝의 침략에 따라 계기된 西歐文學의 衝擊에 의해서 이른바 傳統의 단절이라는 文學史的 矛盾의 惹起, 抵抗精神의 排除와 自我忘覺症, 그리고 自鐵氏의 지적대로 消化不良症과 悲哀의 文學으로 전락하게 된 것 등이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학의 表皮의 現象보다도 문학의 內的 現象 즉 意識의 마스크라라는 측면에서 주로 살펴보는 것이다.

Ⅰ. 敗北主義의 樣相

日帝의 植民地支配라는 環境作用으로 인하여 우리 新文學의 측면에 나타난 증세를 우선 지적하면 다음 세 가지 점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 敗北主義의 樣相, 둘째 誇大妄想症의 樣相, 셋째 植民地的 虛無主義의 樣相 등이다. 이러한 諸樣相中 먼저 敗北主義의 樣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新文學에 나타난 敗北主義의 樣相은 新文學의 대표적 作家의 한 사람으로 흔히 꼽혀지는 金東仁에게서 극명히 읽을 수 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日帝의 植民地政策이 意識의 측면에서 우리 民族에게 뿌리깊이 심어준 것이 바로 敗北主義이다. 被植民地民의 敗北主義의 퍼어서널리티와 그러한 意識의 양상은 본질적으로 植民地政策의 극심한 心理的 壓力的 結果로 야기되는 현상이다. 征服者와 被征服者와의 관계는 심리적으로 항상 優越과 劣等意識을 鼓吹시키며, 반대로 그들 자신의 優越性을 부단히 강조한다. 이것은 植民關係의 본질이다. 植民主義者들은 본질적으로 被征服民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스스로 납득시키지 않고는 外國社會에서 不請客의 역할을 하며 살기가 심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¹⁾

植民地 統治者들은 자기네의 침략에 대한 罪意識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들은 植民地 民族보다 文化的으로 生物學的으로 우월하며, 따라서 자기네의 目的을 武力으로 강요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어느 社會이든 外國民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데에 대해서 罪意識을 緩和시켜주기 위해서 내세워야만 하는 正常化의 기초였던 것이다. 植民地的 壓力이 1,2世代間 지속될 때는 植民地社會의 대부분의 成員들 속에 劣等感과 無關心狀態 즉 직접적인 生活圈 이외의 사물에 대한 관심의 결여라는 敗北主義 피어서 널리티를 조성하게 된다는 것은 植民地社會에서 공통되는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²⁾

日帝의 野慾은 우리 民族의 완전한 노예화에 있었다. 그러한 그들이 우리 民族에게 植民統治에 대한 抵抗의 組織과 通路를 완전 봉쇄하기 위해 敗北의 劣等意識을 심어주었던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다. 그들의 소위 <內鮮一體>나 <日韓同祖論>이니 또 日帝의 御用學者들에 의해 날조되었던 植民地主義史觀의 結定論 따위가 그것을 反證해 준다.

가령, 喜田貞吉이 「韓國의 併呑과 國史」라는 글에서,

「日本이 한국을 병합한 것은 실로 日韓關係가 太古의 狀態로 復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힘으로 빈약한 分家로서 우리 나라는 (日本을 지칭함, 筆者註) 실로 富強한 本家라고 할 수 있다. 分家로서는 自力으로 훌륭하게 집살림을 꾸려나갈 만한 資力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협박을 하게 되고, 저놈이 학대를 하게 되어 가련한 우리의 형제는 못놈들로부터 창피한 꼴을 당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련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라고 한 虛構의 주장은 우리 民族의 思考方式을 敗北主義로 전락시켜 완전 노예화를 책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그것은 우리 民族에 대한 그들의 優越과, 그들에 대한 우리의 劣等關係를 공공연히 강요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日帝는 우리 民族의 意識深層에 敗北主義를 뿌리 깊이 심으려 하였고, 그렇게 하여 심어진 敗北主義는 바로 우리 新文學의 意識領域에 깊이 작용하였다. 新文學에 나타난 敗北主義의 樣相은 前揭한 바와 같이 金東仁에게서 극명히 읽을 수 있다.

金東仁의 「감자」는 그의 대표작으로 꼽혀진다. 이 작품을 낳게 한 文學精神 즉 文學思想은 自然主義라고들 흔히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自然主義이건 寫實主義이건 여기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은 敗北主義로 함몰된 이 작품의 深層的 表情이다. 사실 金東仁은 後述되어지는 바와 같이, <半島民衆의 皇民化>라는 日帝의 植民地主義에 동조하고 또 여기서 영향 받은 作家이다.

작품 「감자」는 원래 가난은 하지만, 정직한 農家에서 제대로 자라난 주인공 福女의 가난하고

1) E. E. Hagen,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金景東譯, 經濟社會學, 서울, 乙西文化社刊, pp. 629~630)
2) 上揭書, p. 630.

도 가련한 신세를 그린 한편, 인간의 온갖 추악한 모습을 描寫한 것이다. 그녀는 열 다섯살 때 동네 할아버에게 팔려서 시집 왔으나, 칠성문밖 貧民窟로 밀려올 정도로 가난한 생활로 轉轉하다가 當局의 貧民救濟를 겸한 기자묘 출발의 송충잡이에 契機되어 몸을 파는 처녀로 타락해 버린다. 이후 貧民村의 거지들에까지 애교를 팔게 된 그녀는, 어느날 밤 中國人의 감자밭에서 감자 한 바구니를 훔친 것을 기화로 중국인 왕서방과의 관계가 사각되며, 그 왕서방이 어떤 처녀를 마누라로 사오자, 질투를 느낀 福女가 그 결혼식날 밤 신혼부부에게 덤벼들다가 왕서방의 낮에 쫓겨 죽는다. 그러나, 마침내 이 殺人事件은 왕서방이 복녀의 남편에게 돈 30원을 줌으로써 暗葬되어 버린다는 줄거리다.

「감자」에서 주인공 福女와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이 작품의 첫머리 그대로 <싸움, 간통, 살인, 도둑,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인 빈민굴에서 사는 가난한 인생으로서 人間의 가장 醜惡하고 隨落한 모습을 연출한다는 것이다. 왕서방한테 몸을 판 돈 3원을 받고 기뻐하는 복녀나, 또 복녀의 시체를 앞에 놓고 10원짜리 3장으로 만족하고 마는 그녀의 남편— 결국 인간성이 돈으로 흥정되고 만다는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같은 醜惡한 人間의 樣相은 바로 極貧者들의 삶의 터전인 빈민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金東仁은 極貧者들이 모여서 사는 貧民窟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惡의 근원지로 본 것이다.

「감자」는 1920年代 중반기의 作이다.³⁾ 당시, 빈민굴은 日帝의 植民地의 收奪로 인하여 沒落한 우리나라 農民과 零細民들이 모여 살았던 生活根據地였다. 이 소설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빈민굴로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福女の 夫妻는 土, 農, 工, 商의 第二位에 드는 농민이었던 것이다.

당시 서울에 있어, 빈민굴은 光熙門밖 무너진 城 밑이나 二村洞의 거친 벌판, 峴底洞, 桃花洞의 산비탈 하며, 鹽川橋부근의 鐵路邊에 무수하게 자리잡고 있었거니와, 이러한 빈민굴은 서울뿐만 아니라 地方에도 도처에 散在하였다.⁴⁾ 東亞日報은 이 지역의 빈민굴의 構造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었다.

「鹽川橋에 이르러 보라. 京義線 기차길을 따라 흐르는 蛤洞 개천의 조약돌 언덕 위에 울퉁불퉁한 거적 자리의 움집이 열 군데나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땅 속에서 살아가는 합동의 빈민굴이다. 큰 집은 長方形으로, 작은 집은 圓形으로 석자나 녀 자 길이의 땅속을 파고 그 위에 마른 잔디나 풀어진 먹서리를 깔아 놓았으니, 이것이 그들의 누워자고 앉아 노는 안방, 건너방, 마루를 겹쳐 지은 이름 모를 방이라. 그 위에는 나뭇가지를 人字 모양으로 걸어 놓고 찢어진 장판과 떨어진 돛자리, 먹서리 등을 함부로 주워다가 되는 대로 붙여서 지붕이라고 만들어 놓았다. 採光의 방편과 공기의 유통등은 그네에게는 문제도 아니요, 오직 들고 나고 할 구멍 하나만 있으면 그만이라……」⁵⁾

3) 朝鮮文壇, 1925. 1월호

4) 林鍾國, 韓國文學의 社會史, 서울, 正音社, 1975, p. 110.

5) 東亞日報, 1923, 5, 10.

이러한 빈민굴이 당시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도처에 무수히 散在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니와, 이는 다름아닌 日帝의 經濟的 收奪의 결과였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우리 民族의 經濟적 窮乏相은 그대로 빈민굴로 대변되며, 이 빈민굴은 바로 우리 民族現實의 비참한 生活相의 한 斷面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빈민굴에 日인들이 살았을 리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東仁은 <싸움·간통·살인·도둑·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근원지>가 바로 빈민굴이며, 여기서 인간의 온갖 醜惡한 모습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日帝의 收奪로 인하여 굶주리고 헐벗은 韓國人들은 <감자>의 주인공 福女나 그녀의 남편처럼 본질적으로, 게으르고 무능하며, 人間性을 돈으로 흥정할 만큼 추악하여, 결국 人間으로서의 存在價値마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셈이다. 이것은 우리 民族의 성질이 근원적으로 추악하다는 것이며, 또 韓國民族 그 自體를 부정한 植民主義的인 結定論的 思考方式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韓國은 힘으로 빈약한 分家로서……分家로서는 自力으로 훌륭하게 집살림을 꾸려나갈만한 資力이 없다>고 한 日帝의 官學者들의 사고방식과 크게 어울린다.

「감자」의 이와같은 意識深層의 마스크는 곧 植民地下의 우리 民族에 대한 회의와 劣等意識에서 나온 敗北主義에의 陷沒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金東仁의 敗北主義는 「눈을 겨우 뜰 때」라는 작품에도 나타나며, 그의 콩트 작품 「×氏」에도 나타난다.

「눈을 겨우 뜰 때」는 運命主義, 快樂主義, 利那主義, 人間侮蔑主義, 虛無主義, 敗北主義 등 金東仁의 모든 意識의 측면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작품은 주인공 금패의 敗北로 끝난다. 快樂을 인생의 至上的 價値로 생각했던 금패의 죽음은, 어떤 필연적 단계와 결과로서가 아니라, 운명과 패락 그리고 利那主義的 人生觀의 극히 우연한 終局과 破綻에 불과한 것이다.

그네줄에서 떨어져 죽기 전까지, 주인공 금패의 腦裡를 꼭 메운 것은 전날 청류벽 위에서 떨어져 죽은 어떤 계집애의 죽음이며, 그것에서 연유된 막연한 인생의 虛無感 그것이였다. <하루 살이와 같다. 이슬과 같다. 실날 같다. 또는 봄꿈과 같다. 옛부터 인생이란 것을 평한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었지만, 그 백만의 경우가 과연 어제 그 한 순간의 사실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한 순간 전에 청류벽 위에서 꽃을 따느라고 돌아다니며 즐기던 계집애가 한 순간 뒤에는 벌써 청류벽 아래 송장이 되어 누워 있었다>와 같은 허무한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스스로 자초한 죽음은 그 계집애의 죽음에 의해서 觸媒된 것이였다. 이 觸媒作用에 의해서 어제까지 人生快樂主義로 지향하던 금패의 의식이 졸지에 虛無와 敗北主義로 轉落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패의 죽음은 금패 자신의 敗北이며, 스스로의 敗北主義에의 陷沒을 의미한다.

東仁의 콩트 작품 「×氏」에는 이같은 敗北主義가 극명히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은 <남에게 지기를 매우 싫어하고 교만한> ×가 路上에서 매일처럼 마주치게 되는 어떤 거만한 사람의 자세에서 말할 수 없는 自己侮蔑感을 느낀 나머지, 漢江에 투신 자살하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의 자살동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에서 비롯되고 있거니와, 문제는 자신의 모멸감을 挑戰의 자세로서 극복하려 하지 않고, 自殺로써 도피하고 만다는 극단적인 敗北主義에 있다.

〈나는 어떤 자에게 욕을 보고 그것이 분하여 세상을 버리오〉라는 것이 ×가 남겨 놓은 遺書이다. 이 遺書를 쓰고 자살한 ×의 深層意識에는 객관적 대상에 돌리야 할 책임을 거꾸로 自己自身에게 돌리고 마는 敗北意識으로 點綴되어 있다.

作家 金東仁이 실로 傲慢할 정도로 唯我獨尊的인 優越意識의 소유자임과 같이, 주인공 ×가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自負心이 매우 강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볼 때, 이 소설의 作品的 効果는 人間의 自負心과 優越意識의 擧揚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優越意識의 측면에는 바로 劣等意識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 둘은 하나의 表裏關係에 불과하다는 心理學의 주장에 주목할 것이다. ×의 죽음은 우월 의식의 표현이 아니라, 열등 의식의 극단적인 표현인 것이다. 作者가 作品結構에 있어서 ×의 自殺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東仁 자신의 敗北意識의 반영일 것이다.

그리고, 金東仁은 인간을 否定하고 侮蔑한 작가였다. 〈감자〉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즐겨 들추어냄으로써, 西歐自然主義 精神과는 관계없이 人間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人間性에 대한 그의 否定的인 態度는 「감자」를 비롯하여 「곰네」, 「明文」, 「遺書」, 「목숨」, 「발가락이 닳았다」, 「答刑」, 「狂炎소나타」 등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人間侮蔑은 〈사람개〉, 또는 〈집개〉(「狂炎소나타」)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곰네」에 있어서 곰네 아버지는 〈무능하고〉 또 〈경제상에는 아무 영향〉도 없기 때문에 〈살아 있대야 곡식만 소비할 뿐〉으로 오히려 죽는 것이 좋으며, 또 「明文」에 있어 주인공 정주사는 그의 어머니가 늙고 무식하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으며〉 살아 있대야 그만큼 〈자기 모욕의 행동〉이 되는 것이므로, 차라리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며, 「遺書」에 있어서 作中話者는 〈아까운 재주를 가진 0분만 결코 타락시키고 싶지 않으나〉 0의 아내라는 〈그 변변치 않은 여편네 하나는 죽든 살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狂炎소나타」에서는 인간이라는 〈변변치 않은 사람개〉는 예술이 산출되는 데에 희생되어도 결코 아까운 存在가 아니라 하였다.

이같은 人間侮蔑과 人間憎惡, 그리고 인간에 대한 懷疑와 人間性에 대한 否定은 인생의 意義나 그 인생을 위해 인간적 노력을 해야 할 이유와 意慾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었다. 인간으로서 人間尊重의 權益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敗北主義에로의 轉落이 여기 있다.

그리고 金東仁은 植民關係에 있어서와 같이, 인간을 優越—劣等の 관계로 보고, 劣等한 인간에 대해서는 嘲笑와 侮蔑을 퍼부어 그 속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優越意識을 맘껏 擧揚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東仁의 意識行爲는 植民地主義 思考方式과 다를 것이 없다. 그의 人間否定 내지 人間侮蔑은 日帝下의 우리 民族 즉 〈半島民衆〉에 대한 否定과 侮蔑이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金東仁은 日帝 强占下의 비참한 民族現實을 외면했다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조소하고 모멸한 작가인지도 모른다. 그가 日帝 末期 일본 역사를 소재로 한 長篇을 썼으며⁶⁾ 皇軍慰問作家團에

6) 「星巖의 길」(朝光, 1944, 8~12월호) (林鍾國, 親日本學論, 서울, 平和出版社, 1966, pp. 192~194참조)

참가하여 日帝에 협력하고, 「徵兵制實施隨感」이라는 글의 副題로 「半島民衆의 皇民化」를 논했으며⁷⁾ 〈大東亞戰이야말로 人類歷史 再健의 聖戰〉⁸⁾ 이라 하여, 〈學兵 보내는 世紀의 감격〉⁹⁾ 을 표명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가 작품 「정희」에서 東京을 극력 禮讚한 것도 이러한 사실에서 연유된 것일 것이다.

되풀이 되지만, 金東仁에 있어 人間侮蔑과 人間否定은 현실에 대결하고 현실적으로 爭取하려는 인간적인 의욕을 근본적으로 抹殺시키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無氣力한 人間, 無氣力한 民族으로 자처한 거와 다를 바 없다. 이것이야말로 敗北主義가 아닐 수 없다. 앞서 말한 金東仁의 죽음이나 X의 죽음, 그리고 作家의 人間侮蔑 등은 그들 자신의 人間の 내지 民族的 敗北를 의미함은 물론, 日帝의 壓制下에서 형성된 敗北意識을 더욱 조장한 결과를 가져 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敗北主義의 樣相은 金東仁 뿐아니라, 新文學의 개척자 春園 李光洙에게서도 나타난다. 作品上의 장황한 설명은 피하고 단적인 예로서 그의 논문 「民族改造論」을 들 수 있겠다. 이 논문에 나타난 春園의 敗北主義는 이미 李基白氏에 의해 지적된 바 있거니와¹⁰⁾ 春園은 이 논문에서 韓國民族은 현재 비관적인 운명에 놓여 있다고 前提하고, 그 근본 원인은 우리들 자신의 〈劣惡한 民族性〉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劣惡한 民族性은 오직 우리 民族의 精神的 根柢인 〈道德性〉의 仰揚에 의해 비로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日帝의 侵略이라는 역사적인 모순과 그 현실을 눈 앞에 놓고 도덕적인 修養으로써 民族改造를 주장한 것은 日帝의 植民地 統治에 순응하고 등조하는 敗北的 投降主義의 산물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그와 같은 春園의 주장은 저 啓蒙思想家 J. 록크가 民族의 德性醇化의 前提로서 立法的인 改革과 사회적 조건의 改善을 주장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당시, 우리 民族이 비관적인 운명에 놓인 것은, 우리 민족의 성질이 劣惡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日帝의 植民地의 支配에 있었다. 그럼에도 春園은 그것을 民族性의 優劣을 논하는 방향으로 돌려, 문제의 실질을 糊塗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李基白氏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매우 적절하다.

「春園의 民族改造論의 論據는 帝國主義的인 侵略主義의 이론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에 침략을 받는 입장에 있던 한국인이 민족적으로 어떤 기대를 가진다는 것이 그릇된 것임을 곧 알 수 있다. 말하자면, 民族改造論은 敗北的인 民族主義였던 셈이다.」¹¹⁾

그러므로, 宋穉氏가 〈民族改造論이란 題號가 풍기는 바 日帝下의 우리 民族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 내용은 民族에 대한 背信을 도덕적으로 僞裝한 글〉¹²⁾ 이라고 신랄하게 평한 것을 단지 지나치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7) 每日新聞, 1944, 1, 16~28.

8) 隨筆「感激과 緊張」, 每日新聞, 1942, 1, 23.

9) 隨筆「日章旗의 물결」, 每日新聞, 1944, 1, 20.

10) 李基白, 民族과 歷史, 서울, 一潮閣, 1971, p. 123.

11) 上揭書, p. 123.

12) 宋穉, 文學評傳, 서울, 一潮閣, 1971, p. 315.

이와 같이, 春園이 당시 植民地現實의 비관적인 운명과 모순을 民族性 優劣의 문제로 돌린 것은 우리 민족에게 劣等感과 敗北感을 조장한 日帝의 침략주의 이론에 스스로 함몰된 결과였던 셈이다. 春園이 反封建意識은 강했으나, 反日意識이 결여되었던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상 살펴온 바와 같이, 日帝 統治의 시대적 환경은 우리의 新文學의 측면에 敗北主義라는 질은 그늘을 드리워 주었던 것이다.

Ⅱ. 誇大妄想症의 樣相

植民政策의 心理的 압력으로부터 造成되는 반응 가운데 前述한 바 敗北主義는 植民地社會의 成員들에서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그보다 더 극단적인 反應은 誇大妄想症이다. 거의 완전한 無氣力狀態의 식민지 壓力下에 가장 직접적으로 놓이게 되는 個人들의 행동은 보다 극단적인 반응으로서 誇大妄想症을 초래하는 것이다.¹³⁾ 植民地的 環境作用이 거의 완전한 自己存在 즉 自己衝動과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敵對의 일 때에 그 개인은 誇大妄想患者가 된다.

誇大妄想은 일종의 自己防禦의 수단이며, 그것은 또 現實逃避와도 깊이 관련된다. 현실적인 조건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敵對의 일 때, 인간은 흔히 自己存在 자체를 믿기조차 거부하고 決死的인 幻想 속에서 자기의 存在가 견딜만한 위치에 자기가 놓여질 수 있는 세계를 스스로 창조한다. 여기에 誇大妄想症이 自己防禦 내지 自己逃避 수단이 된다는 이유가 놓인다.

이렇게 日帝의 植民地支配에 따라 惹起된 誇大妄想症은 우리의 新文學에 심각하게 작용하였다. 앞에서 살펴진 作家 金東仁에게서 이러한 誇大妄想症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狂畫師」, 「狂炎소나타」, 「배따라기」, 「목숨」 등이 그러한 경향의 작품으로 지적되어져거니와, 특히 「狂炎소나타」는 「狂畫師」와 더불어 그의 誇大妄想的 幻想主義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주목된다. 이 작품은 金東仁의 耽美主義 내지 藝術至上主義를 대변해주는 것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는 작품이다.

「狂炎소나타」의 주인공 白性洙는 아버지 대부터 音樂家 집안의 청년 作曲家다. 그는 狂的인 犯罪行爲를 저지를 때마다, 그 충격과 감흥으로 한 편이 뛰어난 作品을 남기곤 한다. 그가 사는 고장에서 잇달아 일어난 원인 모를 放火事件은 모두가 그의 범행이다. 위대한 作曲을 위해서 그가 다음에 손을 댈 것은 死體胃瀆과 屍體姦淫이었으며, 마침내는 殺人을 저지르는 지경에 까지 이른다. 이러한 범죄 때문에 白性洙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作中の 나레이터인 音樂批評家 K氏는 자기 친구에게 하찮은 범죄를 구실로 天才的인 藝術家를 희생시켜서는 안된다고 역설한다. 藝術의 그 完美를 위해서는 범용한 人間들이 도리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작품은 한마디로 放火와 殺人 屍姦과 死體胃瀆 등 人間으로서 범할 수 없으며 또

13) E. E. Hagen, 前掲書, pp. 632~633.

범해서도 안될 罪惡들을 藝術이라는 이름으로 美化하고 合理化한 것이다. 이러한 美化와 合理化는 이미 그 자체로서 하나의 妄想이며 幻想이다.

이리하여 저는 마침내 사람을 죽인다 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한개의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그 뒤부터 제가 지은 그 모든 것은 단 사람씩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狂炎 소나타」)

放火나 殺人을 자행한 다음의 흥분으로 위대한 藝術作品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하나의 誇大妄想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흥분으로 위대한 藝術作品이 나올 수 없음을 물론이거니와 또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 예술의 탄생을 위해서는 放火와 殺人을 해도 좋다는 이같은 논리는 적어도 妄想的인 藝術至上主義者 金東仁에게는 <능히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心理>일지 모르나, 狂人인 아닌 正常人에게는 결코 수긍될 수 없는 하나의 망상이며 환상인 것이다.

이같은 誇大妄想的인 虛構는 실제에 있어서, 日帝의 植民地 支配下에서 형성된 것이거니와, 이는 그 이유에 있어 日帝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誇大妄想이라는 夢遊病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精確한 認識과 判斷을 흐리게 하여 그들이 侵略蠻行의 모순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다.

誇大妄想症은 현실의 조건이 어려워 때, 일종의 自己防禦와 逃避의 수단이 된다는 앞의 말을 상기한다면, 作家 金東仁은 誇大妄想的인 虛構속에 安住함으로써, 植民地下 民族現實을 도피하고 個人的인 自己安逸을 꾀했는지도 모른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그리고, 「狂謔師」와 더불어 「狂炎 소나타」에 나타나는 바 金東仁의 耽美主義 내지 藝術至上主義의 옹호는, 당시 우리의 民族現實을 입각점으로 하여 볼 때는 그 자체가 하나의 망상이요 환상인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人間性을 否定하는 위에서 日帝下의 민족의 현실을 망각하고 도피한 자의 自己合理化로 성립된 美學>¹⁴⁾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金東仁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평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다.

「문제는 그의 이러한 耽美主義다. 예술을 위해서 악이 허용될 수 있다. 로마가 불타도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얻으며 그만이고, 나라를 팔고 민족을 배반하는 내용이라도 예술적으로 훌륭하면 좋다. 결국 이러한 탐미주의는 식민지 압제下에서 형성된 文學論으로 소지식인의 자기보호책이며, 일제에 대한 順應主義 내지 投降主義의 예술적인 자기 합리화인 셈이다.」¹⁵⁾

그러나, 이같은 신랄한 비평은 이에 앞서 日帝의 植民地支配라는 環境作用과 그 變數的 要因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作家의 책임은 결국 그 작가에 있지만 時代的 環境作用의 책임을 作家의 責任으로 치환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狂炎 소나타」에서 誇大妄想症의 경향을 살펴보았거니와, 誇大妄想症은 흔히 暴君崇拜論을 수반하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金東仁은 역사상 부정적인 人物로 지탄 받은 暴君들을 숭배하였다.

14) 林瑩澤, 新文學運動과 民族現實의 發見 (「創作과 批評」 1973년 봄호, 동권 27호)

15) 上揭文

로마를 불지르고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詩를 읊은 네로, 그리고 아방궁을 지으며 소년 三百을 배를 데워 不死藥을 구하러 보낸 秦始皇을 역사상 다시없이 위대한 인물로 찬양하고 숭배하였던 것이다.

「유토피아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며 사람의 위대함을 끝까지 즐긴 진나라 시황(秦始皇)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시황은 몇만의 역사가가 어떻게 하고 욕을 하든 그는 참말로 인생의 향락자며, 역사 이후 제일 큰 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순진한 용기있는 사람이 있고야 우리 인류의 역사는 끝이 날지라도 한 〈사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배따라기〉에서)

이와 같이, 金東仁은 역사상 부정적인 인물을 찬양, 숭배하였거니와, 이는 기실 日帝가 우리 민족의 支配를 위하여 유도한 바였다. 이와 같은 歪曲된 思考方式이나 幻想癖을 갖게 함으로써 日帝는 자기네의 식민지 침략의 모순을 위장하고 정당화 하려 했기 때문이다. 폭군 숭배는 人生觀에 대한 편견임은 물론, 역사적 모순인 日帝의 侵略主義에 대한 合理化의 자리를 제공해 준 것이기도 하였다. 誇大妄想症의 속성인 폭군숭배는 실로 日帝의 壓制下에서 형성된 歪曲된 認識態度가 아닐 수 없다.

이상으로 과대망상증의 樣相을 비교적 간단하게 살펴보았거니와,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명시해두어야 할 사실은 이상 논의된 과대망상증의 樣相이 곧 韓國新文學의 전반에 걸친 양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다만 環境作用에 있어서의 一部分의인 또는 一側面的인 양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 둔다.

Ⅳ. 植民地的 虛無主義의 樣相

우리나라에 대한 日帝의 支配는 우리의 新文學에 植民地的 虛無主義文學을 낳게 하였다. 암울하고도 절망적인 時局으로 말미암아 퇴폐, 침울, 비애, 감상, 허무 등의 색조를 띤 문학이 잉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절망적인 時代狀況이 절망적인 虛無의 문학을 낳은 셈이다.

近代社會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新文學의 환경은 그야말로 암담한 深夜의 어둠과 같은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民族史에 있어 民族保全을 위한 투쟁운동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 갔다. 開化初期, 〈自主와 主體의 抵抗으로 民族史的 추진력으로 승인될 수 있었던 斥邪의 주장〉이 民族史推進力으로 관찰되지 못하고, 결국 外勢의 침략에 패배하고 만 1870년대의 어둠을, 비롯하여 1894년의 農民戰爭의 좌절, 그 2년 뒤인 1896년 獨立協會의 自主民權主義의 정치적 운동 역시 실패로 돌아 갔으며, 民衆과 知識層의 總體的 反帝運動으로서의 義兵抗爭마저 국내의 강압적인 武斷壓力 밑에서 종식되고, 마침내 抗日民族獨立의 거국적인 운동이었던 1919년의 3.1운동 역시 실패로 끝난 것이다.

이러한 民族史的인 좌절이 韓國新文學의 측면에 어둠의 集積으로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近代社會가 순조롭게 진행할 때, 그같은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문학도 순조롭게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新文學은 그같은 순조로운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학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日帝治下의 한국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실로 참담하고도 암담한 것이었다. 특히 日帝의 植民地의 收奪로 인하여 빚어진 經濟的 窮乏化現象은 민족의 生存權마저 위협할 정도였다. 즉, 1908년에 설립된 東拓을 비롯하여 日人會社들은 광범한 토지를 약탈하였고, 1905년~1910년의 불과 5년 사이에 그들은 全國耕作地의 5~10%를 수탈하고 있었다.¹⁶⁾

日帝의 土地收奪은 농민의 농토로부터 離脫을 加速化시켜, 도시의 최하층 노동자로 또는 북간도의 流浪民으로 전락시켰으며, 이러한 植民地의, 貧困과 飢饉은 심지어 아내와 딸을 娼樓에 팔아먹는 비극까지 속출시켰다. 당시 <開闢> 1922년 12월호 표지에 <먹어야 살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外國人의 세력이 뿌리 박는다>와 같은 절규는 바로 民族生存權이 얼마나 위기에 치해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된다.

특히, 총독부의 原稿檢閱은 표현의 자유를 완전 봉쇄하여, 민족적 自我意識의 形象化작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다. 일체의 公的인 文化活動은 오직 親日化로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밑에서 作家들은 민족적 좌절감을 맛보았으며, 동시에 그들의 意識深層에 절망적인 허무주의의 색조를 버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허무주의는 現實認識과 自我意識의 과정에서 빚어진 그것이 아니라, 단지 식민지 상황에서 빚어진 絶望的인 感傷的 領域의 그것이라는 점에서 거의 완전한 植民地의 虛無主義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虛無主義의 표정을 다음과 같은 한 詩人의 표백을 통하여 읽을 수 있다.

「自由롭지 못한 이 몸은 물결에 따라 바람결에 따라 하얗없이 떴다 잠겼다 할 뿐입니다. 봄이는 가슴의 내 맘의 설움과 기쁨을 같은 동무들과 함께 노래하러면 나면서부터 말도 모르고 「라임」도 없는 이 몸은 가이없게도 내 몸을 내가 비틀며 한갓 떴다 잠겼다하여 봄일 따름입니다. 이것이 내 노래입니다. 그러기에 내 노래는 설고도 곱습니다.」¹⁷⁾

위의 引用文은 金億의 詩集「해파리의 노래」 卷頭에 실린 글의 일부이다. <自由>도 없이 오직 <내 몸을 내가 비틀며 떴다 잠겼다>할 뿐인 이 詩人의 허무한 몸짓은 당시 民族的 自由가 상실된 時代—그러한 時代가 낳은 몸짓이다.

<나면서부터 말도 모르고 「라임」도 없는 이 몸>에서 우리는 이 詩人이 근본적으로 未來도 希望도 없다는 그러한 絶望意識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엄밀한 뜻에서 希望이나 未來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爭取이다. 未來의 希望을 향한 鬭爭意識의 指向點이 완전히 배제된 이같은 植民地의 虛無主義는 敗北主義와 그대로 연결되기도 한다.

가령, 위의 引用文에서의 <이것이 내 노래입니다. 그러기에 내 노래는 설고도 곱습니다>에서 그것은 단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설다>는 哀의 뜻이며, 「곱다」는 아름다움 즉 美의 뜻이다. 文脈上 <哀>와 <美>는 직결되어 있다. 즉, 哀는 美이며 美는 또한 哀라는 것이다. 美와 哀의 等式的인 관련성이 바로 우리 民族의 傳統的인 美意識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럼적도 하

16) 安秉直, 19世紀末~20世紀初의 社會經濟와 民族運動(「創作과 批評」 1973년 겨울호, 동권30호)

17) 金億, 해파리의 노래, 朝鮮圖書株式會社, 1923, p. 1.

리라.

그러나, 문제는 前掲引用文에서 金億이 진술한 바 그 <설움>이란, 다름아닌 植民地的 環境作用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결국 植民地狀況下的 <설움>이 그대로 <아름다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感情의 倒錯狀態이며 意識의 誤謬이다. 이 感情의 倒錯狀態와 意識의 誤謬는 金東仁의 歪曲된 價値意識의 표현인 폭군 숭배론과도 일맥 相通한다. 결국, 金億은 日帝의 植民地支配에 따른 민족의 슬픔 그것을 하나의 아름다움 그것으로 美化하려 한 셈이다. 敗北主義와 植民地的 虛無主義의 산물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美는 眞이며, 眞은 美이다>(「on a crecian urn」)이라고 한 키이츠(john keats)의 적극적인 태도와는 매우 대조적이다.

金億의 소위 <설고도 고운 노래>의 가락들이 倦怠, 苦惱, 歎息, 悲哀, 失意, 感傷 등으로 길게 물들여져 있음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의 詩에서 볼 수 있다.

빈 들을 휩쓸어 돌으며
 때도 아닌 落葉을 催促하는
 부는 바람에 쫓기어
 내 青春은 내 希望을 버리고 갔어라.

저 멀리 검은 地平線위에
 소리도 없이 달이 오를 때
 이러한 때에 나는 고요히 혼자서
 옛 曲調의 피리를 불고 있노라.

(金億, 「피리」全文)

이 詩는 무엇보다도 懷古의인 색조로 靑 차 있다. 希望도 未來도 없는 青春의 피리소리는 오직 옛 曲調에 호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병적인 아름다움과 음울한 색조는 3.1운동 이후 1920년대 前期의 詩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으로 지적되어지고 있다.¹⁸⁾ 이 무렵, 金億을 비롯하여 黃錫禹의 象徵詩와 같은 종류의 詩作이 유행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나, 그러한 유행으로서의 病的인 아름다움, 애담고 서러운 뒤안스, <보드라운 감정>의 抒情的 詠歎 등은 당시 프랑스 象徵詩의 作詩論의 영향 밑에서 빚어진 것이 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日帝의 壓制下에서 형성된 식민지적 허무주의의 意識 밑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것은 詩에 있어서뿐 아니라 小說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玄鎭健의 「술 권하는 社會」, 「운수 좋은 날」(「開闢」1924, 6). 廉想涉의 「標本室의 鏡 개구리」(「開闢」1921, 8~10월호) 등이 그러한 作品例로 지적될 수 있겠다.

「술 권하는 社會」는 植民地下 지식인의 비애를 그린 것이다. 즉 <양심과 이성을 잃지 않고 무언가 뜻있는 일을 해보려는 有爲有望한 청년이 술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현실「술 권하는 사

18) 鄭漢模, 韓國現代詩文學史, 서울, 一志社, p. 382.

회」를 고발한 것」¹⁹⁾ 이 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은 그러한 知識人의 비애가 社會矛盾에 대한 고발이나 抵抗의 차원보다, 挫折과 失意와 絶望이라는 심정의 感傷的 차원에 더 많이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作者는 〈술 권하는 社會〉에서 植民地現實은 오직 술꾼으로 轉落할 수밖에 없다는 점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소설 내용에 따르면, 作中人物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또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 〈조선 사회〉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社會를 만들어준 원흉은 바로 日帝이다. 결과적으로, 술꾼으로 전락하게 한 객관적 원인은 日帝인 셈이다. 그럼에도,

「우리 조선놈들이 조직한 社會는 다 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요. 하려는 놈이 이리석은 놈이야. 격이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게 도무지 없지. (……)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어……」

라고 객관적이며 능동적인 行爲因子를 외면하고 직접 〈조선놈들이 조직한 사회〉 즉〈조선 사회〉에 대해 비탄어린 절망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술 권하는 社會」는 日帝로 인한 社會의 현실의 모순을 自己身元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일종의 感情的 誤謬에 빠지고 있다. 抵抗과 批判의 정신이 배제된 植民地的 虛無主義의 자세가 여기 있다 하겠다.

작자는 作中話者를 통하여 〈이 社會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다〉고 통탄하지만, 적어도 歷史意識이나 리얼리즘의 批判情神에 입각한다면, 당시의 社會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이 아님은 물론, 또 그런 것이어서도 안될 것이다. 「술 권하는 社會」는 물론 日帝下의 民族現實을 개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현실을 告發하고 批判하려는 意識 以前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 이 소설이 플롯만을 위주로 한다면, 다만 有識한 남편과 無識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전개되는 비극적인 人間關係만을 더듬어 본 것에 불가하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玄鎭健은 〈白潮〉의 다른 同人과는 달리 社會意識에 기초를 둔 작가로서, 〈예술의 幻影만을 따르며 現實性을 무시하려는〉 당시의 경향에 반대하여 文學의 社會的 效用性을 주장하는 동시에 作家의 對社會의 姿勢를 강조하고 나서기는 하였으나,²⁰⁾ 실지로 作品上에 있어서 現實性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 그의 對現實의 姿勢는 역시 植民地的 虛無主義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운수 좋은 날」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都市의 최하층 노동자의 비애를 그린 것이다. 주인공 김첨지는 가난한 인력거꾼이다. 그의 가난이 결국은 그의 아네의 죽음과 자신의 破局을 몰고 온다는 결말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김첨지는 유달리 수입이 좋

19) 林瑩澤, 前揭文

20) 玄鎭健의 對現實의 姿勢는 그의 글 「朝鮮魂과 現代精神의 把握」(「開關」1926, 1월호)에 구체적으로 표명되어 있다.

은 그날, 病中에 누워 있는 아내를 위하여 설령탕 한그릇을 사들고 歸家하지만, 것처럼 설령탕 국물이 먹고 싶다면 아내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처절한 이야기는 당시 植民地 民衆의 貧窮相을 극명히 描破한 것이 된다. 그러나, 빈궁에서 오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展望의이며 積極的인 자세와 그러한 작업으로까지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운수 좋은 날」에서 작자는 貧困淒絶한 식민지 현실에서 民衆의 행운이란 결국 破局的 絶望 밖에 달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植民地的 虛無主義 意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위 조라(zola)流의 實驗主義的인 계몽을 밟은 작품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는 廉想涉의 「標本室의 정계구리」 역시 식민지적 허무주의 意識을 보여주고 있다. 단적으로 이 소설의 표면에 흐르고 있는 願世的 絶望的 분위기부터가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時代的 現實을 명쾌히 分析, 解剖하려는 自然主義的 實驗精神이라는 냉철한 方法論과는 실상 매우 먼 거리에 놓여 있음은 물론, 文章의 톤부터가 그리하듯이 주인공 <나>의 感傷的인 詠歎, 절망,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작품이다.

이 점에서, 「標本室의 정계구리」는 작품의 성격상 玄鎮健의 「술 권하는 社會」와 同軌的이다.

이상, 논의된 바와 같이 日帝의 壓制는 우리의 新文學에 植民地的 虛無主義 文學을 낳게 하였던 것이다.

V. 結 語

우리의 新文學은 日帝의 植民地支配過程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같은 文學外的 事實은 新文學의 正當한 발전을 가로 막았음은 물론, 文學的 事實에 바람직하지 못한 몇 가지의 樣相을 띠게 하였다. 그것은 곧 敗北主義, 誇大妄想症, 虛無主義 등으로 요약된다.

植民關係에 있어서 被征服者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들로서 敗北主義, 誇大妄想症 등이 지적될 수 있음은 이미 本論의 논의에서 살피진 바와 같다. 특히, 日帝의 야욕이 우리 민족의 완전 奴隸化에 있었음을 생각할 때, 그같은 노예화를 催促하기 위하여 敗北主義的 意識을 심어주었으리라는 것은 엄연한 객관적 사실로 지목된다.

이렇게 日帝의 植民地 支配라는 環境作用에서 야기된 그러한 樣相들을 金東仁, 李光洙, 金億 玄鎮健, 廉想涉 등 新文學 初期에 속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보았다. 金東仁의 敗北主義 및 誇大妄想症, 金億과 玄鎮健의 植民地的 虛無主義, 이같은 新文學의 측면들은 모두 日帝의 壓制下에서 형성된 否定的인 양상들이다. 이 양상들은 물론 우리 新文學이 내포한 약점들로 지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약점들은 근본적으로 日帝의 植民地的 狀況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植民地時代라는 文學外的 事實을 고려한다면, 우리 新文學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攻擊과 罵倒는 그 자체 하나의 橫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부연될 수 있겠다. 狀況에다 물을 책임을 文學자체에다 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